

보도시점

2026. 7. 30.(목) 11:00
< 7. 31.(금) 조간 >

배포 2026. 7. 30.(목)

충청권 392조 투자, 민관이 함께 속도 낸다

- ‘충전대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 개최 -
-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100일 행보 추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30일(목) 충청권 첨단산업의 초격차 선도 방안 논의를 위한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전대 TF는 지난 7.2일(목)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제1차 실행 TF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 각 투자기업 임원이 참석하였다.

< 제1차 충전대 민관합동 실행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7.30(목) 16:00~17:30 / 세종청사 회의실
- 참석자 : 중앙정부, 충청권 지방정부·투자기업 등 TF위원
 - 중앙정부 : 산업통상부 산정실장(위원장), 재경부·과기정통부·기후부·교육부·국토부·기획처 등 담당 국장(정부 위원)
 - 지방정부 :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부단체장 (지방정부 위원)
 - 투자기업 : 삼성·SK·셀트리온·네이버 담당 부사장 등
- TF회의 안건 : ❶충전대 민관합동 실행TF 운영계획(안)
❷기업 전체 투자계획 및 기업과제
❸충청남도 기업 지원방안
❹SK 충청권 투자계획(안) 및 對정부 건의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❶충전대 민관합동 실행TF 운영계획(안), ❷기업 전체 투자계획 및 기업과제, ❸충청남도 기업 지원방안, ❹SK 기업 충청권 투자 계획(안)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 충청권 기업의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은 충청권 투자가 적기에 성과로 이어지려면 **용수·전력의 안정적 공급, 세제 혜택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충청권 대국민 보고회에서 언급되었듯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인 바, **충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투자계획이 적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충전대 TF는 7.2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한 392조의 기업 투자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투자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1회 정기적으로 실행TF**를 개최하고, 100일 내 ‘**충청권 기업투자 범부처 지원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위승복 (044-203-4420)
		담당자	서기관	홍기웅 (044-203-4422)
			사무관	김동영 (044-203-4405)
			사무관	권준형 (044-203-4424)